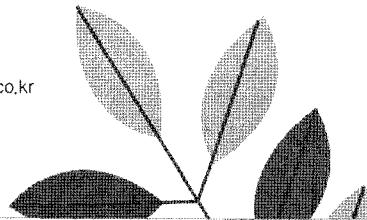


삼성전기 | 녹색경영그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314번지  
tel. 031-210-66345 | www.samsu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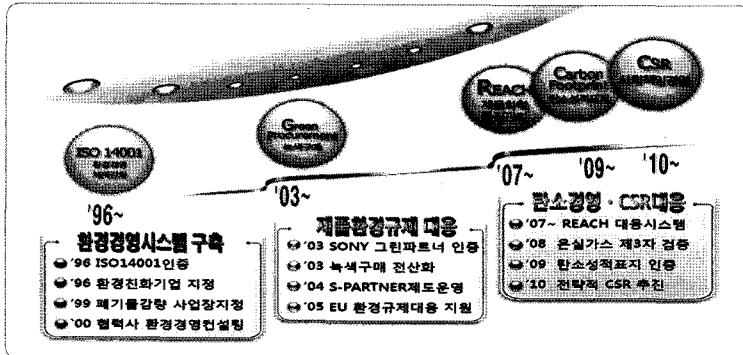


## 삼성전기 녹색경영 추진 사례

삼성전기는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6년 ISO14001 인증 도입 후 범 지구적인 기후변화 이슈와 글로벌 제품환경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녹색기업 협의회장사로서 환경 관련 국책 과제 추진 및 정책 자문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선진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삼성전기는 해외법인에서도 현지 법규 준수를 기반으로 투명경영을 가속화하였고, 법기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안정화된 사업장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등 글로벌 녹색경영 성과를 현지 정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 | 녹색경영 추진연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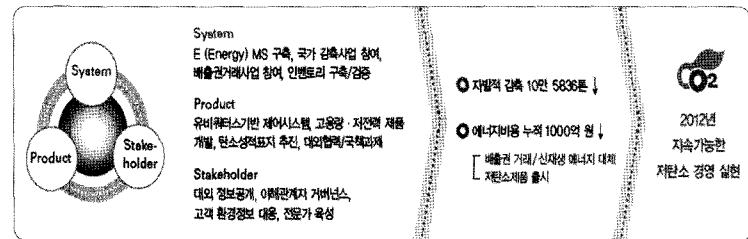


### | 저탄소 경영 중기전략 |

삼성전기는 저탄소 경영추진을 위해 탄소경영 시스템 구축, 저탄소형 제품개발, 대외 이해관계자 대응을 3대 축으로 세부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10만

**SAMSUNG** 삼성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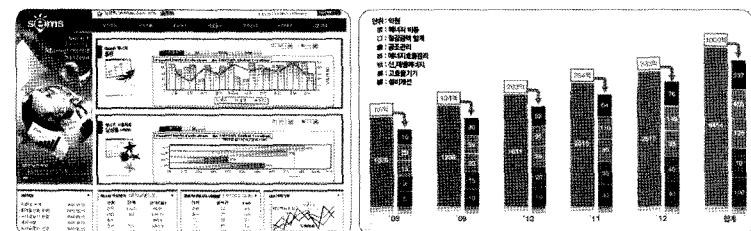
5,836톤 저감, 에너지 비용 누적 1,000억 절감, 그린마케팅을 통한 저탄소경영 실현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대비 2012년까지 원단위 40% 저감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저감 중에 있다. 최근 3년간 에너지 저감 활동을 통해 527억원의 비용 저감과 더불어 온실가스 12만 5천톤을 저감하였으며 이는 약 111만그루의 소나무 식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향후 공장 신증설, 생산량 증가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다. 주요 감축 활동으로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에너지 저효율 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도입, 공정 에너지 사용 효율 최적화 등으로 전사차원의 실무협의체를 구성, 활동성과 모니터링 후 경영층과 이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 경영 이슈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히 '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기회 분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전사차원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경영이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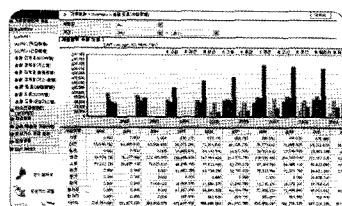
## | EMS(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은 기업이나 사업장이 설정한 에너지 이용 효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사적 에너지 관리활동이다. 삼성전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MS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2년까지 에너지 비용을 매출액 대비 3.2%에서 2.5% 수준 까지 낮춤으로써 저탄소 에너지 경영을 실현할 예정이다.



## | 기후변화대응 전산시스템 구축 |

2005년부터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제3자 검증을 통해 배출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사업장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현황, 감축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기업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활동 추진 |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범위가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협력사, 물류, 임직원 출장, 출·퇴근 등 전과정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2010년 실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물류 88.7%, 출장 5.8%, 출·퇴근 및 폐기물 처리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화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내 및 해외법인 간 단기 출장 감소로 경비 절감과 더불어 863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 다양한 에너지절감 퍼포먼스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취득 |

삼성전기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참여하여 신축 건물에 다양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하였다. 2008년 준공한 드림프라자는 LED조명 전면 채용과 태양광 집광시스템 및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자연환기설계 도입, 친환경자재 사용,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나비 비오톱과 수경공간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건축요소를 접목하였다. 이는 국내 제조사업장 단일 건물로는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사례로 기준 건물 대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절감하였다.



## | 저탄소형 친환경제품 개발 |

첨단 전자제품은 초소형, 조박형, 고성능 핵심부품을 요구함에 따라 소재, 무선, 광기술을 바탕으로 고용량 Capacitor 개발, 연료전지 개발, 태양광 파워인버터 등 신제품 개발과 에너지 저감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학계와 공동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삼성전기는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MLCC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였다. 향후 제품별 탄소 정보를 확대 조사하는 한편 공정개선을 통해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 나갈 예정이다.



## | 정부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참여 |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초과 배출허용량에 대한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전기는 2009년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환경부 및 자식경제부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Cap&Trade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내부 대응역량 강화 및 중장기 경쟁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 협력업체 동반 성장을 위한 저탄소 상생경영 추진 |

글로벌 제품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상생경영 추진이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환경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관련 협력업체 저탄소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2010년 협력사

23개사를 대상으로 협력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2개 협력업체 제품 Carbon Footprint 산정, 2개 제품 탄소라벨링 취득, 23개 협력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고, 협력업체의 저탄소 경영 인력 양성을 위하여 각 부문별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10년 협력사 온실가스 총 3,586톤을 저감하였으며, 6.5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실현하였으며 이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녹색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다.

## | 국가녹색경영 선도 |

### 환경정책 및 제도개선 참여활동 전개 – 녹색기업협의회장사 활동

삼성전기는 2001년 5월 환경친화기업협의회(녹색기업협의회로 명칭 변경) 회장사로 선임된 이후 전국 8개 권역 197개 회원사를 대표하여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정책 및 요구사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녹색기업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녹색경영 평가기준 제정에 대한 참여 및 제도 건의를 통하여 기업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원 녹색성장 포럼 참여

삼성전기는 2008년 출범한 녹색성장포럼에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회장사로서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천을 위한 녹색성장포럼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지자체의 환경인허가 제도와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효율화 및 산업계 차원의 기여 방안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탄소정보공개제도(Carbon Disclosure Project) MOU 체결

삼성전기는 기업의 탄소경영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하여 2009년 7월 환경부 및 CDP한국위원회와 탄소정보공개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녹색기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사업 및 시범공개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 | 대외 이해관계자 대응 |

최근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관심은 투자 기관, 정부기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객사들은 탄소경영을 포함하는 환경 정보 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한해동안 3,500여건의 환경정보 요구를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정부기관과 산업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협의체에 참가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교류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기후변화정책 소통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